



지난 14일 남문터광장에서 열린 '2026 윈츠 순천'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남문터광장에서 열린 '2026 윈츠 순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초대가수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 '윈츠 순천'... 시민은 즐겁고 윈도심엔 활력

### 시, '도심형 콘텐츠' 축제 개최...5만여명 방문 캐릭터 공연·체험부스 운영...정책 홍보 '범읍'

'2026 윈츠 순천'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남문터광장과 윈도심 일원에서 열린 '2026 윈츠 순천'에 5만여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6 윈츠 순천'은 '콘텐츠로 날다'를 주제로, 공연·체험·전시·산업 홍보를 윈도심 공간과 결합한 도심형 콘텐츠 축제로 추진됐다. 행사장에서는 무미·퐁이 편 위킹, 캐릭터 공연, 체험 부스, 콘텐츠 기업 전시,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며 남문터광장과 윈도심 일

원에 활기를 더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무미·퐁이 편 위킹'에는 400여명이 참여해 순천시 대표 캐릭터 무미·퐁이와 함께 옥편편을 걸으며 윈도심의 매력을 체험했다.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90여명이 참가해 자신만의 무미·퐁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순천 캐릭터 IP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콘텐츠 기업들은 남문터광장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 영상 송출과 기업 콘텐츠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가 윈도심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윈도심 스텝프투어에는 1000여명이 참여해 축제 관람객의 윈도심 유입을 이끌었으며, 주요 상권과 연계한 먹거리 존도 행사 기간 방문객 증가와 점포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홍보 부스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에서 운영한 AI 포토 챗지 만들

기 체험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에 1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콘텐츠 축제를 활용한 정책 홍보 효과도 높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윈츠 순천은 콘텐츠가 시민에게는 즐거움을, 윈도심에는 활력을, 기업에는 새로운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윈도심을 콘텐츠가 흐르고 시민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와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민선 8기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 고흥, 행정 공백 없이 민선 8·9기 사업 추진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전략 산업 등 89건 현안 논의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민선 8기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추진 중인 SOC사업 등 총 89건의 중점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고속도로, 철도, 고흥읍~봉래 간 4차선 확장 등 3대 교통 인프라를 양대 축으로 삼아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의 비전 실현을 위해 군정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우주발사체 산업을 러스터 조성,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고흥 우주선 철도(별교역~고흥역~녹동역)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을 다뤘다. 더불어, 고흥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고흥 해양 예술랜드 관광단지, 대중골프장 조성 과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고흥문화재단 설립, 고흥 분청사기 기반 특화상품 개발 등 문화·예술 분야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1GW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햇빛소득마을 조성, 고흥 김수출전문 특화농공단지 조성,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건립, 국가 어항정비 등 신재생에너지, 농수축산업, 지역개발 등 주요 시설 사업도 다뤘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민선 9기에서는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을 반드시 현실화·구체화시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금까지 고흥군의 변화·발전은 위해 14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힘 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민선 9기에는 '더 큰 고흥,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고흥의 성장과 발전이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 여수 농특산물 '섬섬여수옥수수' 우수성 알린다

### 시, 27~28일 페스티벌 개최...직거래·공연 등 다채

여수 대표 농특산물인 '섬섬여수옥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가 열린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화양면민화관 일원에서 '제5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섬섬여수옥수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섬박람회와 맞물려 '섬섬여수옥수수에 설레고~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반하다'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마련해 섬박람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 보탠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여수의 대표 브랜드인 '섬섬여수옥수수'를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소비자들과 생산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섬섬여수옥수수는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강원도 등 타 지역보다 수확시기가 빨라 남부지방 옥수수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행사를 통해 옥수수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섬섬여수옥수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표 농특산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은 지역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여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갓 수확한 여수 옥수수의 맛과 매력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증강당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업인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 보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농업인 안전지킴이 발대식

보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증강당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업인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농업인 안전지킴이로 활동할 안전리더와 온열질환 예방 요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 예방 활동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인 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책임을 다짐하는 실천 결의 퍼포먼스와 온열질환 예방 용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온열질환 예방사업-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설명, 온열질환 예방조치·기본 수칙 교육, 응급처치 요령 영상교육 등이 실시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농업인 안전지킴이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안전리더 2명과 온열질환 예방요원 12명 등 총 14명의 선도농업인이 지역 농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안전 활동을 펼친다. 주요 활동은 폭염 위험 시간대 농작업 안전 순찰,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실천 독려, 안전용품 지급과 착용 방법 교육, 시기별 농작업 안전지킴이 안내, 고령 농업인 안부 확인 등이다. 군은 농업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폭염 취약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 광양,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 유니세프 상위단계 인증 획득

광양시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갱신은 광양시가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이후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 정책 추진 성과를 다시 인정받은 결과다. 인증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30년 6월까지 4년이며,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이행 성과와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아동 참여기구'와 '아동권리지킴이'를 운영하며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아동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강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 인식을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 이와 함께 도서관과 놀이터 등 '아동 이용 공간'을 개선하고, '유아숲·생활환경숲·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성장 환경을 확대했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주변 위험요인 점검·보완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상위단계 인증갱신은 시민과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아동을 존중하며 함께 키우는 행복한 광양시' 비전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권리 증진,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유빈 기자 kkyubin@gwangnam.co.kr

## 곡성, 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고독·고립 위험군 조기 발굴

곡성군은 '혼자가 아닌 우리'를 슬로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군은 중앙 위기정보를 활용해 올해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조사, 4월 6일부터 30일까지 2차 조사를 추진해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주민 70여명을 발굴했으며,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또 전남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와 연계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21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고독·고립 우려 대상자 41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군은 발굴된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반려식물과 관리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과정에서 읍·면 담당자와 사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안부와 생활상태를 확인하며, 식생활 취약 가구에는 균형 영양식과 간편 조리식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 안부 확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만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스마트돌봄플러그를 지원해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소방서와 협력한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고독·고립 문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반려식물 지원, 식생활 지원, 스마트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ews1@gwangnam.co.kr